인문논총 제74권 제1호 (2017.2.28), pp. 281~308
[DOI] http://10.17326/jhsnu.74.1.201702.281

역사 영화화의 한 사례, 「사도」(2015)*

정 병 설**

[초 록]

이 글은 2015년 9월 개봉된 영화 『사도』를 제작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사도』는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인생 전체를 그린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정통사극'이다. 사도세자 사건은 『한중록』에 가장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서, 『사도』는 역사를 영화화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고전을 영화화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문학의 영화화나 역사의 영화화에 대한 연구는 대개 텍스트 비교 연구였는데, 본고는 텍스트 표면의 비교를 넘어서서 원작과 영화의 관계를 역사 해석의 역사성 속에서 살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실제 제작 과정에서 역사적 자료가 어떻게 사용 또는 변용되었는지 밝히고자 했다.

『사도』와 같은 사극은 역사적 사실의 참신성과 시의성에 의해 제작될 수 있다. 사도세자 사건의 경우 역사 해석이 뒤바뀌면서 그에 따라 관련 영상물의 제작 방향이 결정되어 왔는데, 『사도』 역시 최신의 연구

* 초고를 읽고 귀중한 수정 의견을 주신 『사도』의 제작사인 타이거픽쳐스 이송원 프로듀서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사극, 사도, 한중록, 사도세자, 임오화변
The Throne, *Hanjoongrok*, Prince Sado, King Jeongjo, Historic Film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사도」는 역사 해석의 참신성과 아울러 그것이 강한 시의성을 지니게 됨으로써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사도」가 보여준 역사의 채용과 변용은 감독의 역량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투자사-제작사-배급사-거대영화관체인으로 엮인 영화산업체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상업영화 특히 블록버스터영화의 해석은 감독과 영화산업체의 길항관계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1. 서론

현대는 영화의 시대이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사랑하는 나라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2015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 영화관을 찾는 국민이다.[1] 영화관 방문 횟수가 아니라도 영화의 열광적인 애호로 유명한 인도 못지않게 영화를 사랑하는 나라다. 한국에서 영화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수입되자 바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1919년 「의리적 구토」(義理的仇討), 이후 1923년 「춘향전」이 제작되어 흥행에 성공을 거두었다. 해방 공간과 전시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간간이 제작되던 영화는 종전이 되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1955년 「춘향전」과 1956년 「자유부인」 등이 대성공을 거두었다.[2]

영화는 영상서사라는 장르적 속성상 소설을 영화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에는 고전소설을 영화화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중에서도 「춘향

1) 한국영화진흥위원회, 「2015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p. 8. "인구 1인당 연평균 관람 횟수는 4.22회로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다. 글로벌 산업정보조사 기관인 IHS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인구 1인당 연평균 관람횟수는 아이슬란드가 4.0회, 싱가포르 3.9회, 미국 3.6회, 호주 3.3회, 그리고 프랑스가 3.1회로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 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정종화(2006), 『영화에 미친 남자』, 맑은소리에 한국영화목록이 있어서 1950년대 이전의 영화 제작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전」이 단연 최고 인기였다. 「자유부인」 또한 소설가 정비석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며, 역사와 관련된 경우에도 역사소설을 영화화한 경우가 많다. 「단종애사」(1956)나 「구원의 정화」(1956)는 각각 이광수와 박계주의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했는데, 「구원의 정화」는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를 그린 작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채로운 작품이 「사도세자」(1956)다. 이 영화의 각본은 이운방(李雲芳)이 썼는데 별도의 원작 소설이 없으며, 현재 필름이 전하지 않아서 어디에 토대를 두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1947년 가람 이병기 선생이 교주를 달아 간행한 『한중록』이 주요한 자료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사도세자 이야기는 소설만큼이나 대중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으며, 『한중록』은 소설에 버금가는 풍부한 이야기와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작소설이 없더라도 충분히 영화화할 수 있다.

사도세자에 대한 영화는 역사를 영화로 만드는 일이면서 동시에 고전을 영화로 만드는 일이기도 한데, 문학과 고전의 영화화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역사의 영화화에 대한 연구는 적다. 역사학계의 영화에 대한 관심은 문학계와는 사뭇 다른데, 영화가 역사가 될 수 있는지, 영화를 역사학의 자료로 볼 수 있을지를 주로 묻는다.[3] 역사영화의 유형 분류를 시도한 한 논문에서는, 역사영화를 '사건 재현형'과 '인물 창조형'으로 나눈 바 있는데,[4] 전자에는 「황산벌」(2003), 「명량」(2014), 「쌍화점」(2008), 「변호인」(2013), 「실미도」(3003) 등을, 후자에는 「평양성」(2011), 「역린」(2014), 「왕의 남자」(2005), 「웰컴 투동막골」(2005) 등을 든 바 있다. 지나간 시간과 사건을 역사라고 말한다면 모든 과거사 영화는 역사영화라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3) 로버트 A. 로젠스톤(2002), 김지혜 역, 『영화, 역사 : 영화와 새로운 과거의 만남』, 소나무, '서론' 참조.

4) 유득순(2015), 「역사영화의 유형분류와 효과적인 활용 방안 – 한국사를 소재로 한 역사영화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54, 한국역사교육학회, 2015, p. 123.

‘인물 창조형’ 역사영화는 물론 심지어 ‘사건 재현형’이라고 부른 역사영화조차 역사적 진실의 추구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영화가 과연 역사가 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2013년 개봉된 6.25전쟁 중의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에 대한 영화인 「레드툼(Red Tomb)」과 같은 작품이나 2014년 개봉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영화인 「다이빙벨」 등과 같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면 역사영화는 근본적으로 역사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역사와 영화는 늘 사실성과 서사성의 두 극점을 왕래하는데, 그것이 역사영화의 특징이자 한계라 할 수 있다.

이 글이 주대상으로 삼는 2015년 9월 개봉된 「사도」는 스스로 ‘정통 사극’으로 칭하면서 역사의 충실한 재현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사건 재현형’ 역사영화 중에서도 역사성이 강한 경우이다. 지금까지 문학과 역사의 영화화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텍스트 비교 연구였다. 원자료가 영화로 제작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밝힌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원자료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기에 영화화의 구체적인 과정을 알기 어려웠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필자 역시 「사도」의 관련 사료를 번역하고 해설한 바 있는 문학연구자로 영화 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다만 「사도」의 자문을 맡아 제작 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료가 영화화하는 과정을 듣고 볼 수 있었다.[5] 영화 제작 과정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문학이나 역사 쪽에서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영화의 원자료가 영화화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차원에서라도 후속 연구에 도움이 전혀 없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본고를 작성했다.

5) 필자는 「사도」의 제작 자문을 맡아서 직접 제작사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했고 중간 중간 진행 사정도 들을 수 있었다. 또 초고를 탈고한 다음에는 영화 제작사 프로듀서에게 원고를 보여서 직접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하 제작과정에 대한 전언은 모두 이송원 프로듀서의 말이다.

2. 「사도」의 제작 과정

[그림 1] 타이거픽쳐스 사무실 풍경.

2015년 9월 개봉된 「사도」는 당초에는 2015년 연초 개봉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투자배급사인 (주)쇼박스가 2015년 구정 시즌에 「조선명탐정」을 배치하면서 개봉이 추석시즌으로 미루어졌다. 배급사가 개봉을 미룬 이유의 이면에는 2014년 7월 개봉된 이순신 장군의 전공을 그린 「명량」이 놓여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명량」이 역대 최고의 관객수인 천팔백만에 육박하는 대성공을 거두면서, 유사한 역사 영화를 연이어 배치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사도」의 촬영은 2014년 가을에 완료되었으나 개봉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편집 등 후반작업이 2015년 여름까지 계속되었다.

「사도」의 제작사는 (주)타이거픽쳐스이며, 대표는 오승현이다. 기획 단계에서는 조철현이 대표였는데 진행 과정에서 후배인 오승현에게 대표직을 물려주었다. 조철현 전대표와 이준익 감독이 사도세자를 소재로 한 영화 제작을 생각한 것은 오래된 일이라고 하며, 그 전에 제작한 영화들의 연이은 실패로 인해 힘들었던 2013년 겨울,[6] 조철현과 타이커픽쳐서 프로듀서인 이송원이 사도세자 영화를 만들어보자고 뜻을 맞춘 뒤, 준비를 위해 관련 문헌과 영상 수십 건을 보았는데, 이때 필자의 방송강의(EBS ‘TV 평생대학-역사이야기’ 『한중록』 강의)와 책(『한중록』 및 『권력과 인간』)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조철현은 이송원에게 영화에 사

6) 이송원 프로듀서는 그해 추운 겨울 조철현 대표와 충무로 타이거픽쳐스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계단에 앉아서 페트병에 든 맥주를 마시며 의견을 나누었다고 회고했다.

용 가능한 구체적인 소재 수십 개를 뽑아보도록 했는데, 가능성이 확인되자 이준익 감독을 섭외했다. 조철현, 이송원, 오승현 세 명이 한 팀이 되어 합숙을 하며 대본을 만들었는데, 대본 합숙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준익 감독이 사이사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대본이 완성된 뒤에는 사무실에서 감독과 대본 작가들이 둘러앉아 각색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대본이 완성되자 투자자를 찾았는데, 「사도」의 경우에는 반응이 좋아서 일주일만에 투자 결정을 얻었다고 했다. 「사도」의 투자사는 (주)쇼박스이며, 여기서 배급까지 맡았다. 투자사는 대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수고비라고 할 수 있는 기획비와 예약금을 제작사에 입금했는데,[7] 이로써 본격적으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작사는 촬영 준비에 박차를 가해 배우를 선정하고 대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영조는 송강호, 사도세자는 유아인, 혜경궁 홍씨는 문근영이 맡았다.

「사도」는 총제작비 95억, 마케팅 비용 등을 뺀 순제작비 65억이며,[8] 송강호의 경우 출연료로 7억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9] 제작비 중에 유명 배우들의 출연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사도세자 역에는 처음에는 「별에서 온 그대」(2013.12~2014.2, SBS)라는 텔레비전드라마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김수현이 거론되었다고 하며 김수현이 고사하자 유아인에게로 넘어갔다고 한다.[10] 정조 역의 소지섭은 대본이 마음에 들어 출연료도 받지 않고 출연 결정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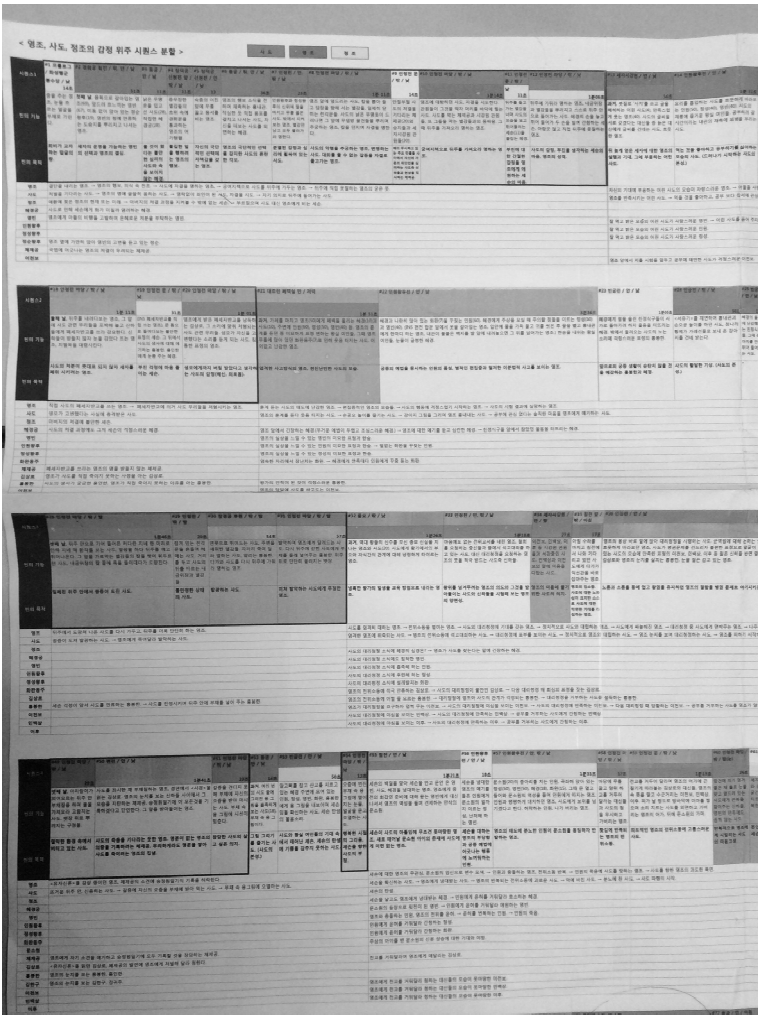
---

7) 제작비는 제작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먼저 감독, 대본 작가, 배우에게 계약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8) 「사도」의 순제작비는 언론에는 60~65억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송원 프로듀서가 65억으로 알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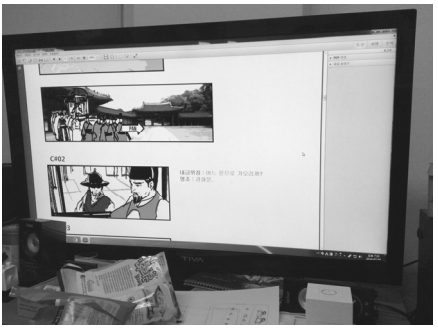
9) 「데일리안」 2014년 12월 17일. 인터넷판.

10) 「스타투데이」 2014년 5월 26일. 인터넷판.



[그림 2] 〈영조 사도 정조의 감정 위주 시퀀스 분할〉 표.

이후 제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최종대본을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장면(scene)별로 그리고 그 아래에 컷(cut)별로 만화를 그린 콘티(conti,



[그림 3]「사도」콘티 컴퓨터 화면.

continuity)를 확정했다. 배우들은 소품을 착용하고 카메라 테스트를 받았는데, 유아인의 경우에는 뒤주 속에서 갇혀 있는 특수촬영까지 했다고 한다. 7월 1일로 예정되었던 촬영개시는 같은 해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아인이 주연을 맡아 높은 인기를 끌었던 텔레비전드라마『밀회』(jtbc 제작)의 종영이 지연되면서 7월 8일로 늦추어졌다. 기획부터 촬영개시까지 반년만에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촬영은 남원 광한루에서 시작하였고, 이후에는 전라북도 부안의 세트장을 주로 이용했다. 당초 창덕궁과 창경궁 등 고궁에 촬영협조를 요청했으나, 문화재청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방송사의 요청은 받아들여도 영화사의 요청은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창덕궁 금천교 같은 곳은 비슷한 돌다리를 찾아서 찍되 배경의 궁궐 전각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촬영이 시작되면 참여 스텝만 해도 칠팔십 명에서 백여 명에 이르는데, 영화 촬영은 3~4개월 정도 이루어지며, 이후 편집 등 후반 작업 또한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증권사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제작비를 감안할 때『사도』의 손익분기점은 관객수 290만 명이라고 하는데,[11] 6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으니 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편에 속한다. 영화는 영화 상영 외에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터넷텔레비전(IPTV)이나 전산망을 이용한 동영상 판매 수입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관련 서적이나 캐릭터 상품 등의 판매 수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영화는 상영 외의 기타 수입이

11)『매일경제』(MBN) 2015년 9월 29일. 인터넷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한다. 「사도」는 영화 그 자체로도 상당한 호평을 받았는데, 2015년 말 한국영화기자협회에서 주최하는 제7회 '올해의 영화상'에서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2015년의 청룡영화상은 상을 휩쓸다시피 했으며, 2016년 백상예술대상의 연기상을 받았다. 「사도」는 상업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화로서도 성공한 작품이다.

3. 사극 제작의 배경

「사도」는 사도세자의 생애를 그린 영화다. 사도세자 이야기를 그린 것은 「사도」가 처음이 아니며, 영화는 물론 텔레비전드라마나 연극까지 포함하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1956년 영화 「사도세자」가 제작된 이후, 영화로는 「망부석」(1963, 임권택 감독)과 함께 정조를 중심으로 사도세자 사건을 재조명한 「영원한 제국」(1995), 「역린」(2014) 등이 있고, 텔레비전드라마는 「한중록」(KBS, 1972), 「안국동 아씨」(MBC, 1979), 「하늘아 하늘아」(KBS, 1988), 「조선왕조 500년, 한중록」(MBC, 1988), 「대왕의 길」(MBC, 1998), 「이산」(MBC, 2007), 「무사 백동수」(SBS, 2011), 「비밀의 문, 의궤 살인 사건」(SBS, 2014)과 함께 「사도」와 비슷한 시기에 영화처럼 1부작으로 제작된 「붉은 달」(KBS, 2015.8) 등이 있다. 그리고 연극으로는 오태석 연출의 「부자유친」(1987)과 이윤택 연출의 「혜경궁 홍씨」(2013)[12]가 있으며, 이밖에 오페라나 뮤지컬로 제작된 것도 있다.[13]

12) 이윤택의 「혜경궁 홍씨」는 연극을 찍어 그대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DnC Live (Drama & Cinema Live)를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필자는 본문에서 언급한 영화 등을 모두 보지는 못했다. 인터넷에 있는 방송사 홈페이지의 소개글, 개인의 회고와 비평문 등에서 대략의 내용을 파악했다. 한편 해당 영상물 내용의 핵심은 주제가에서 엿볼 수도 있는데, 1956년 「사도세자」는 도미, 1963년 「망부석」은 이경희, 1979년 「안국동 아씨」는 조미미, 1988년 「하늘아 하늘아」는 염수연, 2015년 「사도」는 조승우의 노래로 남아 있다.

사도세자 이야기를 그린 작품들은 「영원한 제국」처럼 사도세자를 내용의 한 요소로 둔 작품이 아니면 원작소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이는 『한중록』이라는 소설 이상의 실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도세자의 생애를 다룬 영화는 거의 『한중록』을 기본 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중록』은 사도세자 이해에 관한 한 독보적 의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한 자료를 중심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 이야기가 거듭 영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한중록』 자체가 난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중록』 이외의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을 이용하면 새로운 해석의 지평이 열릴 수도 있다. 여기서는 먼저 지금까지 영화, 텔레비전드라마, 연극에서 사도세자의 생애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살피면서, 「사도」 제작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지난 육십 년 동안 영화 등 영상예술장르에서 그려진 사도세자의 형상은 시기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초기에는 사도세자의 비참하고 가련한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세자라는 영화로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뒤주에 갇혀 죽는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관심거리였다. 이 시기에는 사도세자의 비극과 함께 아내인 혜경궁 홍씨의 슬픔에도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어려서 세자빈이 되어 전도가 양양하다가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한평생 괴로이 살았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임권택 감독이 1963년 발표한 「망부석」이나 텔레비전드라마 「안국동 아씨」, 「하늘아 하늘아」가 그런 작품이다.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부인의 상징물인 '망부석'이나 혜경궁의 별칭이 될 수 있는 '안국동 아씨' 그리고 혜경궁이 『한중록』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하늘에 통곡했다는 점에서 따온 '하늘아 하늘아'의 제목에서 이들 작품이 혜경궁의 슬픔과 한에 중심을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초기에는 『한중록』 외의 다른 자료를 거의 이용할 수 없었기에 『한중록』에 기반을 두고 영화나 텔레비전드라마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런데 민감한 일을 다룬 데다 궁중 특유의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해석이 쉽지 않은 책이라서, 제작자들은 온전히 『한중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물을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한중록』을 보았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이해한 것만으로 작품을 만들었던 것이다. 일례를 들면, 『한중록』에서 혜경궁은 사도세자가 발작을 하여 주위 사람들을 죽이고 할 때, 차마 아내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병으로나 다른 무엇으로나 그냥 죽기를 바란다고 했다.[14] 혜경궁은 남편이 죽고 나서도 남편을 그리워한다고 한 적이 없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던 것도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른 다음 외가를 공격하여 혜경궁의 친정이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초기 작품들은 혜경궁이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진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러다가 『한중록』에 기술된 내용을 의심하는 역사학계의 연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15] 사도세자와 혜경궁에 대한 인상은 크게 달라졌다. 결정적으로는 이덕일의 『사도세자의 고백』(1998)이라는 소설적 흥미를 지닌 대중역사서가 널리 읽힌 데서 비롯된 일인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덕일이 형상화한 사도세자의 이미지가 주류가 되었다. 이 책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우수한 자질을 타고났으며 특히 무예에 출중하였고 북벌의 큰 뜻까지 지니고 있었으나, 조선 후기의 정치적 당파 가운데 권력을 잡지 못한 소론의 편을 들면서 노론의 지지를 받는 부왕 영조와 멀어졌고, 혜경궁 홍씨 집안을 포함한 노론의 음모로 인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게 되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여기서 혜경궁 홍씨는 남편을 잃은 불쌍한 여인이 아니라 친정을 도와 남편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여인이 되었다. 그리고 『한중록』은 아들 정조가 등극하여 외가를

14) 정병설(2014), 『혜경궁 홍씨, 회한의 궁중생활 칠십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p. 66-68.

15) 이은순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한중록에 나타난 사도세자의 사인」에서 시작하여 『조선후기당쟁사연구』(일지사, 1988)에서 정리되었다.

공격하자 자기 친정과 노론의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았다.

텔레비전드라마에서 이런 사도세자의 형상이 많이 그려졌는데 「이산」, 「무사 백동수」, 「비밀의 문, 의궤 살인 사건」 등이 그렇다. 영화로 보면 이런 관점의 선두에 「영원한 제국」(1995)이 있는데, 이는 『사도세자의 고백』 이전에 나온 것으로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민간의 소문에 근거를 두었다. 이 작품과 함께 「역린」(2014) 또한 2000년 이후 형성된 사도세자의 형상을 따르는데, 두 작품 모두 정조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으며 사도세자는 부차적으로 그려졌다.

달라진 사도세자는 『한중록』에 그려진 광인 이미지를 벗고 영민하고 날렵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왕자다. 정치적 반대파의 모함에 억울하게 희생되었으며, 사후에 집권 세력에 의해 이미지가 조작되어 부정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 그 조작의 일선에 아내 혜경궁이 있고, 『한중록』을 그 결과물로 보았다. 이런 의견이 널리 퍼지는 데 이덕일의 책이 큰 역할을 했지만, 그 논리의 바탕이 된 주 사료는 아들 정조가 쓴 사도세자의 전기인 「현륭원행장」이다. 「현륭원행장」에는 사도세자가 어릴 때 훌륭한 자질을 지녔고, 온양 온천으로 거둥했을 때는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었는데, 반대편 신하들의 음모로 억울하게 죽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사도세자가 광증이 있다든지 아버지 영조로부터 질책을 당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으며, 반대편 신하들이 어떤 음모로 어떻게 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는지도 기술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호하게 서술된 전기로 『한중록』을 비판하고 사도세자를 새롭게 해석했다.

최근에는 다시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는 결정적으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와 같은 방대한 사료가 디지털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이다. 『조선왕조실록』을 꼼꼼히 읽을 수 있게 되자, 그 속에 사도세자의 비행을 그린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승정원일기』에 『한중록』보다 더 많이 사도세자 성장기의 과오와 고통이 그려져 있음을 보

게 되었다. 『영조실록』은 국가 공식 역사이지만 편찬을 주도한 사람들이 노론이니 『한중록』처럼 기술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록보다 훨씬 방대한 1차 자료라 할 수 있는 『승정원일기』까지 그런 혐의를 두기는 어렵다. 즉위 직전 정조가 영조에게 요청하여 『승정원일기』에 실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빼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정원일기』에는 곳곳에 사도세자 성장기에 아버지에게 질책을 받은 일이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해 『한중록』에서 그려진 사도세자의 형상이 과히 잘못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승정원일기』에 그려진 것보다 완곡하게 그려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질책을 받는 사도세자의 형상은 만화로 그려진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경종영조편, 2010)에도 담겨 있고, 필자가 주석을 달고 번역한 『한중록』(2010)에도 나오지만, 특히 필자가 『한중록』과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제반 사료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한 『권력과 인간』(2012)에 뚜렷이 형상화되어 있다. 「사도」의 기획자들은 이런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고,[16] 텔레비전드라마 「붉은 달」(2015.8,

16) 영화의 엔딩크리딧을 보면 다음 6종 자료가 참고문헌으로 적혀 있다. 『한중록』(혜경궁 홍씨,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권력과 인간』(정병설, 문학동네, 2012),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5, 16, 17권(박시백, 휴머니스트, 개정판 2015),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중용, 인간의 맛』(김용옥, 통나무, 2011). 이 가운데 마지막 『중용, 인간의 맛』은 사도세자가 영조 앞에서 중용을 읽는 한 장면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이고, 『조선왕조실록/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두 방대한 자료는 어떤 식으로 참고했을지 알기 어려운 원자료이다. 이 둘을 빼고 나면, 필자가 번역하거나 쓴 두 책과 박시백의 만화가 있을 뿐이다. 「사도」가 이전의 다른 사도세자 영화와 두드러지는 다른 지점은 사도세자의 성장기를 다룬 부분인데, 이는 필자가 『권력과 인간』에서 주로 『승정원일기』를 토대로 그렸던 것이다. 영화의 원작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책과의 유사성을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의 엔딩크리딧에 이들 책을 '참고문헌'으로 올리고 필자의 이름은 총 24명의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중 한 명으로만 표시했기에, 필자가 제작사에

KBS)과 이윤택의 「혜경궁 홍씨」(2013)도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17]

『한중록』은 사도세자의 생애를 자세히 그렸지만 혜경궁의 당파적 성향으로 인해서 진실성을 의심받았고, 「현륭원행장」은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그릴 수 없는 아들이 쓴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가 비교적 공정한 사료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도세자의 죽음을 그린 영상물들은 사도세자 사건에 대한 연구사의 흐름에 맞추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한중록』 외에는 기록이 전무하다시피 하던 시절에는 사도세자 참변의 안타까움과 남편을 잃은 아내의 설움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현륭원행장」 등으로 『한중록』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는 사도세자의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리고 최근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일차 사료들이 대거 이용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전후 맥락이 한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에게 줄곧 고통을 당하는 인물로 그려졌고 혜경궁 홍씨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따른 인물이 되었다.

항의했다. 결국 '자문료'와 상기 두 책에 대한 '참고문헌 사용료'로 오천만원을 받았고, 인터넷텔레비전(IPTV) 등의 엔딩크리딧을 고치도록 했다. 영화의 '자문료 및 참고문헌 사용료'를 받은 것은 우리 영화사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의 연구가 우리 학계의 오랜 연구가 집약된 것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자문료 등으로 받은 돈 전액을 대학에 기부했음을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밝힌다.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거금의 자문료를 내놓은 타이거픽쳐스에 다시 감사드린다.

17) 이윤택 연출의 「혜경궁 홍씨」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필자가 번역한 『한중록』에 일정하게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번역한 『한중록』에만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윤택은 필자가 해석한 『한중록』을 만나, 혜경궁 홍씨를 종전의 남편을 잃은 불쌍한 여자 또는 남편을 죽인 간교한 여자로 보았던 것을 부부 관계의 파국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여자로 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붉은 달」은 종전에 사도세자 배역을 모두 날씬한 미남 배우를 기용한 것과 달리,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따라 약간 뚱뚱한 배우를 기용했는데, 이 역시 필자의 책 『권력과 인간』에서 처음 찾아서 제시한 사도세자의 이미지이다.

사도세자 관련 영상은 이처럼 사도세자 사건에 대한 연구의 진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새로운 연구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연구나 영상은 모두 각 시기에 강한 시의성(時宜性)을 지니고 있다. 과거 일을 다룬 사극이라도 그것이 현재 상영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현대극일 수밖에 없음을 상기한다면 당연한 말일 수 있다. 현대적, 당대적 의미가 없다면 사극은 아예 기획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초기의 사도세자 영상물은 세자라는 높은 신분에서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을 겪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과, 혜경궁 역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으면서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했던 사실로 인해 공감을 얻었던 듯하다. 전쟁과 독재를 겪으면서 더할 수 없는 비참 속에 살아가야 했던 한국인들이 지존이면서도 극한 상처와 고통 속에 죽어간 사도세자를 보면서 스스로 치유를 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무속에서 사도세자가 뒤주대왕이라는 무신으로 모셔진 이유와 같을 것이다.

두 번째 시기의 사도세자는 세상의 구조적 악과 부조리와 대결하는 영웅이다. 막강하고 거대하며 동시에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과 맞서다가 좌절한 영웅이다. 이런 인물이 어느 시기인들 인기가 없으랴마는, 국제통화기구(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사회적 침몰의 원인을 찾던 시기에, 역사에서 발견된 구조적 악은 깊은 공감을 끌어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런 역사 해석이 제대로 된 자료와 해석에 기반을 두지 않아서, 역사적, 서사적, 영화적 논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자료를 통한 세 번째 시기의 사도세자는 붕괴된 가족 관계, 특히 부자 관계의 파탄이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최근의 사도세자 서사는 『한중록』과 『승정원일기』에 세세히 그려진 사도세자의 성장기 교육 과정에 대한 삽화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데, 사도세자가 공부를 꺼리고 놀기를 즐기며 대리청정 이후 영조와 불화가 심해져 병증이 심해진 과정에 대한 것이다. 「사도」는 스스로를 부자관계를 다룬 영화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강남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가서 함께 보는 영화라는 말까지 있다며 논란을 부추겼다.[18] 「사도」를 마치 일종의 교육영화처럼 여기기도 했던 것이다.

사극은 그것이 놓인 역사연구의 단계와 현재적 시의성에 의해 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사건, 같은 인물이라도 새롭게 조명될 무엇이 있을 때 다시 영상으로 제작되고, 또 충분한 현재적 의미를 담보할 때 제작되는 것이다. 물론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영화적 기법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시 제작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기념비적 영상으로 남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도」는 역사 해석의 참신성과 현재적 시의성 면에서 적절한 지점을 확보했기에 성공한 작품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역사 영화화의 주체

보통 사람들은 「사도」를 이준익 감독의 영화로 알고 있다. 영화 포스터에도 "송강호 유아인"의 두 주역배우 이름 외에 "이준익 감독작품"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포스터를 보면 「사도」는 이준익이라는 작가가 송강호, 유아인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예술작품으로 이해하게 된다. 물론 영화에서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그런데 다른 영화가 아닌 「사도」처럼 백억 원에 육박하는 제작비를 들인,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블록버스터 영화로 분류되는 영화를 감독의 독창과 독단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성진수는 「동시대 한국영

18) 「아시아경제」 2015년 10월 19일. "영화 사도 신드롬과 헬조선." 인터넷판. 벌써 나온 「사도」에 대한 두 편의 논문도 영화를 부자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강원(2015), 「임오화변 서사를 통해 드러나는 시대적 징후 고찰 － <비밀의 문>, <붉은 달>, <사도>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50, 한국극예술학회.
신원선(2016), 「<사도>에 나타난 부자갈등의 양상과 그 현재적 의미」, 『현대영화연구』 23,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화에서 작가주의의 상업적 수용 양상」(2014)이라는 논문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시대 한국에서는 영화 산업이 작가와 작가주의를 자신의 상업적 목적으로 포용, 흡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19] 「사도」 역시 작가주의를 상업적으로 포용한 것일 수 있다.

「사도」와 같은 상업영화는 기본적으로 영화산업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현대의 영화산업은 투자사-제작사-배급사-거대영화관체인의 연결 속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감독은 이 복합체의 부품일 수밖에 없다. 감독이 이 구조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부품되기를 승인한 것이 된다. 물론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개성이 강한 감독이 있겠지만, 자기 목소리를 오롯이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복합체의 위력에 굴복하거나 애초부터 타협할 수밖에 없다.

2012년 「미스터K」라는 영화를 찍다가 제작사, 투자사와의 불화로 촬영 중단 사태에 이른 이명세 감독의 경우가 감독과 영화산업의 긴장 또는 길항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20] 이 둘은 서로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파탄이 나고 말았다. 감독은 영화산업체의 뜻을 잘 파악하여 자기 작품과 조화시키고, 영화산업체는 감독의 작가 정신을 북돋우어주고 이용하면서 자신의 지향과 맞추가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이준익은 「왕의 남자」(2005)로 천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해 '천만 감독'의 반열에 올랐는데, 「즐거운 인생」,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 「평양성」의 연이은 실패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3개가 쭉 망해서 피해가 만만치 않았어요. 3편이 연속으로 망하니 너무 힘들었어요."라고 말할 정도였다. 2013년의 「소원」이 약간의 흥행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전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니

19) 성진수(2014), 「동시대 한국영화에서 작가주의의 상업적 수용 양상」, 『한국영화연구』 63, 한국영화학회, p. 165.

20) 「스타뉴스」 2012년 5월 4일. 인터넷판.

「사도」 제작 상황에서 영화산업체의 의견을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더욱이 「사도」는 뒤이어 예산 5억 원을 들여 제작한 「동주」처럼 저예산영화가 아니라 블록버스터영화니,[21] 감독이 흥행에는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자기 뜻을 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사도」는 "이준익 감독작품"이면서 동시에 영화 여러 부문과 여러 사람의 손길과 숨결이 들어 있는 작품이다. 그 해당 요소를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를 통해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학문적 성과이다. 「사도」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사도세자가 휘하의 무관을 이끌고 칼을 차고 아버지 영조를 죽이러 가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한중록』 외에는 다른 어떤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한중록』에도 그저 "수구를 통해 윗대궐로 가신다 하다가 못 가시고 도로 오시니" 정도로만 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는 졸저 『권력과 인간』에서 『승정원일기』와 각종의 조선시대 야담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했다.

> 10일 밤부터 서울에는 큰비가 내렸다. 하루 넘게 비가 오는 바람에 궁궐 안팎의 개천에 물이 잔뜩 불어 있었다. 세자는 한밤중에 이런 물길을 뚫고 경희궁으로 갔다. 그의 미행(微行)이 보통 때와 다름없었다면 거의 백 명에 이르는 수하인이 뒤를 따랐을 것이다. 세자는 그들과 장대비를 맞으며 칼을 빼들고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질렀다. 아무리 한밤이라지만 일대의 장정이 서울 거리를 누볐으니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세자는 경희궁으로 가는 중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반란이다. (『권력과 인간』, p. 217)

---

21)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수익성 분석에서는 총비용 10억 원 미만 영화를 '저예산 영화', 1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 영화를 '일반 상업영화', 80억 원 이상의 영화를 '블록버스터 영화'로 구분한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 「2015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보고서, p. 31.

필자는 제작사 관계자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 부분만 생각하면 마치 영화를 보는 듯 가슴이 뛴다고 했다. 미친 아들, 비오는 밤, 청계천을 따라 뛰듯이 걷는 백 명의 칼을 든 무사들, 아버지를 죽이려는 시도. 이런 자극적 설정과 상황이 기획자는 물론 감독에게도 강한 영감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2014년 4월 제작사 관계자가 필자를 처음 만나기 전에 필자에게 보내온 대본에는 정조가 혜경궁 환갑잔치에 부채춤을 추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어 선희궁이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죽여 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것이 현재와 같이 바뀌었던 것이다.

기획자 역시 영화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사도」의 기획자는 작품을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본을 만들고 제작 중간에 감독과 함께 계속 대본을 수정하였다. 작가까지 겸했던 것이다. 감독이 기획까지 맡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사도」의 경우에는 기획을 제작사 대표와 프로듀서가 맡았다. 이준익 감독은 「사도」 개봉 후 공개 인터뷰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은 난독증이 있어서 책을 잘 읽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발언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을 읽고 정리하면서 작품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일을 기획자들이 맡았다. 필자가 처음 만난 사람도 제작사 대표와 프로듀서였고, 이후 프로듀서를 통해 진행 상황을 들었으며,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 역시 그쪽으로 주었다. 처음 원작에 대한 예우 문제로 「왕의 남자」의 경우를 들어서 질문했을 때도 감독의 답변을 프로듀서를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다. 기획자와 작가를 겸한 제작사가 감독의 매니저 역할까지 한 것이다.

촬영이 끝난 영화는 개봉 직전까지 계속 내용을 수정한다. 「사도」는 제작 과정에서 대본이 크게 달라졌는데, 필자가 처음 본 대본이 영화와 크게 달랐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본을 토대로 만들어 영화 개봉 후 간행한 소설(『사도』, 휴먼큐브, 2015)조차 영화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22] 시작 장면 외에 작품 제작 중간에 삽입된 장면의 한 예를 들면, 사도세자의 애견(愛犬)을 들 수 있다. 한국 사극에서, 궁중 사극에서 애견

을 출연시킨 것은 「사도」가 처음인 듯한데, 이는 필자의 논문에 바탕을 둔 것이다.[23] 필자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사도세자가 그린 것으로 전하는 「개그림」을 통해 궁궐의 애완동물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그것을 제작사에 설명하고 논문을 보내줌으로써 영화에 애견이 등장하였다.

영화에는 배우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는데, 「사도」의 경우에는 영조 역을 맡은 송강호의 영향력이 작지 않았다. 영화 순제작비의 1할 이상을 차지한 그의 개런티가 그의 비중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영화 제작에도 일정한 발언권이 있어서, 자기가 맡은 영조의 인물 성격 해석에 나름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그는 촬영 전에 영조에 대해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면 소화력도 약하겠다고 했다는데, 그런 말을 전해 듣고 영조의 식성에 대한 필자의 논문을 보내주었더니, 영조의 식사 장면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하며,[24] 논문에 따라 영조가 보리밥을 물에 말아서 먹는 장면이 실제로 촬영까지 되었으나 편집과정에서 빠졌다고 한다.[25]

배우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영화에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사도」 종반부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뒤주 앞에서 사도세자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영조의 목소리 장면이 그렇다. 여기서는 자식을 죽인 아버지로서 영조의 회한이 표출되고 있는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장면을 이렇게 만든 것은 송강호의 의견이었다고 한다. 송강호는 자신이 맡은 영조가 자식 죽인 무자비한 인간으로만 그려져서야 되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송강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려 9분 가량 이어지는 이 장면에 대해, "본래는 대사를 밖으로 내뱉지 않고 마음 속 대

22) 설민석(2015), 『버림받은 왕자, 사도』, 휴먼큐브는 소설 『사도』와 함께 짝을 맞추어 간행한 책이다. 모두 투자사의 이익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23) 정병설(2013), 「궁궐의 개, 사도세자의 개」,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태학사.

24) 정병설(2014), 「영조의 식성과 고추장 사랑」, 『18세기의 맛』, 문학동네.

25) 이송원 프로듀서의 전언이다.

사로 처리를 하려고 했다. 현장에서 내가 이준익 감독에게 '후시 녹음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대사를 하면서 카메라를 돌리자'고 제안했다. 이준익 감독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렇게 촬영했다. 감정을 혼자 끌고 가면서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 대사가 뭉개지는 장면도 있었지만, 후시 녹음은 입히지 않았다. 정확한 대사보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감독님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26] 내용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표현 방식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이 두 부분 모두에 해당되는지는 몰라도, 이 장면에서 배우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화산업체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로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조 역을 맡은 소지섭이 부채춤을 추는 장면을 들 수 있다. 이 장면은 십 분 가까이 이어지는데, 관객들에게 지루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 부분이다. 이준익은 감독으로서 이 부분이 영화의 종결을 위해 꼭 필요했다고 말하는데, 영조의 죽음으로 영화가 끝났다면 영조와 사도세자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감독은 영화로서 완결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냥 재미만을 추구하고 끝나는 영화가 아니다. 사도세자로 장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도」를 찍지 말아야 했다."고 했다.[27]

감독의 의도를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등장인물이 화해해야 서사가 종결될 수 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인물의 화해가 서사 종결의 요소라는 것은 어떤 현대적 서사물에도 통용될 수 없는 논리이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도 영조와 사도세자는 화해하지 않았다. 「사도」는 티저 예고편 등을 통해 '사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생각할 사', '슬퍼할 도' 곧 '너를 생각하며 슬퍼하노라'로 풀이했다. 영조가 자신을 죽인 회한을 드러낸 것이 '사도'라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라는 이름은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도'는 사도세자가 죽은

26) 「OSEN」 2015년 9월 26일. 인터넷판.

27) 「뉴스1」 2015년 9월 11일. "사도, 특별출연 소지섭의 등장이 긴 이유." 인터넷판.

다음 영조가 내린 이름인데, 이런 것을 시호라고 하며 시호는 시호를 짓는 법 곧 시법(諡法)에 의해 짓게 된다. 망자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글자를 골라 짓는 것이다. 시법에 의하면 '사'는 잘못을 반성했다는 뜻(追懷前過曰思)이고 '도'는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뜻(中年早夭曰悼)이다. 풀이하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일찍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런 부정적 의미를 담은 시호를 악시(惡諡)라고 하는데, 영조는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이런 사정도 모르고 '사도'라는 이름에서 영조의 후회를 읽은 것이다. 영화와 실제 역사의 거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부채춤 장면이 길게 삽입된 데 대한 이송원 프로듀서의 설명은 이렇다. 원래는 부채춤을 포함하여 정조 관련 분량이 더 많았는데, 편집과정에서 대부분 삭제되었다고 한다. 특히 영남 선비들이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상소를 올린 이른바 만인소 장면 등은 촬영까지 다 해놓고 편집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 투자사는 만인소 장면 등을 빼자고 했고 감독은 넣자고 하면서 개봉 직전까지 이견이 있었다고 하며, 투자사는 또한 정조의 부채춤 장면도 가능한 한 짧게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준익 감독은 만인소 장면은 넣지 못했지만 부채춤 장면에서는 자기 뜻을 관철시켰다고 한다. 감독과 영화산업 간의 길항 작용 속에서 영화가 제작됨을 잘 보여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배우와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원래 정조 역을 맡은 소지섭의 캐스팅은 개봉 전까지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고 한다. "제작진은 영화 크랭크인과 크랭크업 자료에 소지섭을 모두 뺄 정도로 극비로 했"는데,[28] 개봉이 늦추어지면서 정보가 새고 말았다. 특히 여성 관객에게 인기가 높은 소지섭을 그것도 출연료도 없이 캐스팅해놓고는 여타 보조출연자처럼 짧은 시간 출연시킬 수 없었을지도

28) 「머니투데이」 2015년 3월 11일. "소지섭, 정조로 스크린 컴백. 송강호 유아인 사도 촬영." 인터넷판.

모른다. 이송원 프로듀서는 이런 해석에 대해 “소지섭에 대한 예우나 마케팅 차원에서 춤 장면이 길어졌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소지섭의 무료출연 때문에 소지섭 출연 장면의 비중이 커졌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기대 높은 배우의 찬조출연을 받고는 단발성으로만 등장시킬 수는 없었으리라는 것은 생각해볼 요소이다.

이처럼 상업영화는 감독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영화 제작의 여러 요소들 나아가 영화산업체까지 포함한 집단의 공동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 감독은 출판계의 편집자처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그리고 국회의 국회의장처럼, 중재자이면서 조종자이고 관리자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 특히 상업영화는 이런 여러 요소들과의 관련 속에서 면밀히 읽을 필요가 있다.

5. 결론

「사도」는 사도세자의 죽음 통해 사도세자의 인생 전체를 그린 역사영화 곧 사극이다. 사도세자 사건은 『한중록』에 가장 자세히 서술되어 있어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그린 영화는 『한중록』을 피해갈 수 없는바 일정하게는 고전을 영화화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문학이나 역사의 영화화에 대한 연구는 대개 텍스트 비교를 통하였는데, 본고는 제작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했다.

「사도」와 같은 사극, 특히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려고 애쓴 이른바 ‘정통사극’의 경우에는 역사 해석의 참신성과 그 해석이 가진 현재적 의미에 의해 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사건, 같은 인물이라도 새롭게 조명될 무엇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충분한 시의성을 지닐 때 새로 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세자 사건에 대한 연구사의 진전은 영화 제작에 막중한 역할을 했다. 「사도」는 고전문

학 또는 역사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 제작되었는데, 새로 만들어진 사도세자의 형상은 작지 않은 현재적 의의를 지니면서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영화는 사도세자의 훈육 과정과 그 사이에 벌어진 부자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것이 현대의 교육 과열과 가족 균열과 맞물리면서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도」는 역사적 참신성과 현재적 시의성 면에서 적절한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상업적으로는 물론 예술적으로도 성공한 작품이 되었다.

「사도」의 이런 영화로서의 성취는 이준익 감독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화 제작의 여러 요소들의 것이기도 하다. 특히 「사도」는 거대 자본이 투자된 블록버스터영화인만큼 투자사-제작사-배급사-거대영화관체인 등으로 엮인 영화산업체의 구조적 통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감독은 이 모든 요소들을 관리하고 중재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자신의 의견과 조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사도」와 같은 상업영화는 영화 제작의 여러 요소들을 두루 감안하여 읽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강원(2015), 「임오화변 서사를 통해 드러나는 시대적 징후 고찰 − <비밀의 문>, <붉은 달>, <사도>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50, 한국극예술학회.

김용희(2004), 「역사 기억을 영화화하는 몇 가지 방식」, 『문학과 영상』 5권 1호, 문학과영상학회.

김외곤(2013), 「판소리의 영화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고전문학과 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노지승(2014), 「고전소설의 영화화와 감성 공동체의 형성」, 『인문언어』 16권 1호, 국제언어인문학회.

박유희(2007), 「1950년대 역사영화의 역사소설 수용 연구」, 『대중서사연구』 18, 대중서사학회.

성진수(2014), 「동시대 한국영화에서 작가주의의 상업적 수용 양상」, 『한국영화연구』 63, 한국영화학회.

신원선(2016), 「<사도>에 나타난 부자갈등의 양상과 그 현재적 의미」, 『현대영화연구』 23,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유득순(2015), 「역사영화의 유형분류와 효과적인 활용 방안-한국사를 소재로 한 역사영화를 중심으로」, 『역사교육논집』 54, 한국역사교육학회.

윤진현(2013), 「1960년대 세조정변의 영화화와 현실인식」, 『세계문학비교연구』 42, 세계문학비교학회.

정병설(2014), 『혜경궁 홍씨, 회한의 궁중생활 칠십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_____(2014), 「영조의 식성과 고추장 사랑」, 『18세기의 맛』, 문학동네.

_____(2013), 「궁궐의 개, 사도세자의 개」,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태학사.

_____(2012), 『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정종화(2006), 『영화에 미친 남자』, 맑은소리.

로젠스톤, 로버트 A. (2002), 김지혜 역, 『영화, 역사 : 영화와 새로운 과거의 만남』, 소나무.

원고 접수일: 2016년 10월 14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2일

Abstract

Making a Film from History; *The Throne* (2015)

Jung, Byungsul*

This article is a study of *The Throne* (思悼), which opened to the public in September 2015. *The Throne* portrayed the tragic death of Crown Prince Sado which took place in 1762. The incident of Prince Sado was recorded in detail in *Hanjoongrok*. *Hanjoongrok* is one of the most famous works in Korean literary history. *The Throne* is an adaptation of history, and also of the classic. So far, studies on film adaptations of history and classics (literature) have usually adopted a comparative approach. This paper, however, analyzes the film through the history of research on Prince Sado and the film making process.

The direction of film production is mostly related to the history of research in the case of historical films. *The Throne* is also a work that reflects the latest research. *The Throne* succeeded greatly in the box office, with the total audience number exceeding 6 million. The success of *The Throne* is due to not only the competence of the director, but also all of the parts of film making, including the film industry complex. The pro-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duction of *The Throne* was an endeavor that involved huge capital, the investment company, the distributor, and a huge theater chain. The complex also had strong editing power over the film. The invisible hand of the complex has to always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ial film.